머리말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지금의 정책을 말하다

- 사회 전반의 규칙을 정비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 기성세대 중에서도 과하게 보호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그들의 조직력을 활용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정치 세력들에게만 좋은 일일 뿐이다.
- 과거 개혁 세력을 자처했던 이들이 기득권을 수호하는 세력으로 변해버렸다.
- 1987뇬 민주화 투쟁의 결과물을 직접 등에 업고 민노총이 태어났고, 이들을 중심으로 데기업의 노동귀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개혁을 막아냄으로써 공공 부문과 대기업이라는 좁고 쾌적한 영토를 본인들만의 것으로 만들고 진입로를 폐쇠해 버렸습니다.
- 정치구너에 입성한 '386세대' 강력한 개혁 저지 세력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쌓은 막대한 평판 자본을 바탕으로 사회적 담론을 선점함으로써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개혁을 미루고 저지하는 논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정치권력이 서로를 자산으로 삼아 긴밀히 협력하면서 진입로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노조권력을 옹호하는 것이 예전처럼 사회가 진보하는 길과 같은 방향이기는커녕 정면으로 거스르게 된 이상, 과거 80년대 식의 계급론적 관점에 묶여 이들을 보호하는 정치권력도 수구이고 퇴행일 뿐입니다.
- 기득권자들이 담합해 변화에 저항하는 이상, 한 시대를 퇴장시키는 것이 쉬울리 없습니다. 진정한 진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의 명확한 관점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이야말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땅히 분노해야 할 청년들이 그 에너지를 기득권을 허물고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개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